

※교안에 나오는 그림 자료는 모두 디다케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으니 내려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 위령 성일

1-2학년 |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3-4학년 | 함께 드리는 기도

5-6학년 |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중등부 | 상징

고등부 | 기도

선생님만  
보세요

## 위령 성월

\*이상현\_마태오 | 서울대학교 교육국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

가을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기입니다. 이때 교회도 연중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위령 성월은 클뤼니 수도원 5대 원장이던 오딜로가 수도자들에게 998년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를 계기로 11월 한 달 동안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고 이것이 위령 성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권고하신 '구원의 기도'는 묵주기도 각 단의 마지막에서 "...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식사 후 기도'를 드리며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늘 그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영혼이나 다른 연옥 영혼을 위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위령 성월을 지내며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교리에 근거합니다. 먼저, '연옥의 존재'입니다. 교회는 1245년 제1차 리옹 공의회에서 '연옥에 대한 교리'를 선포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죄인이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 받고 사함을 받아도 잠벌은 남으며, 이는 보속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서 보속을 다하지 못한 경우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은 경우 그리고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사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느님나라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산 이와 죽은 이가 모두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는 것이다"(루가 20, 38).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들은 서로의 공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하느님을 느끼며 사는 우리들은 이미 하느님나라에서 영복을 누리는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지상의 우리들을 위해 하느님께 빌어 주고,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속할 수 없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모든 성인의 날'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위령 성월에 성당의 묘지 등을 방문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위령 성월

### 배울 거리

위령 성월의 의미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 미리 갖출 거리

필기도구

\*이ולי\_루시아 | 서울대학교 교육국 유아신앙교육부



### 시작 기도



### 들어가기

### 관심 갖기

교사는 101~102쪽 그림 자료를 이용해 예화를 들려 준다.

오늘은 아름이가 가족들과 함께 큰집에 가는 날이에요. 큰집에 왜 가는지는 모르지만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떠 있어요.

아름이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버지께 물어 보았어요.

"음, 5년 전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야."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시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요? 그럼 여기서 아주 멀겠네요. 어? 그럼,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요? 우리끼리만 만나면 할아버지께서 슬프시지 않을까요?"



“하하. 이렇게 친척들이 모인 것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드리기 위해서란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정말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날이니까요. 저도 함께 기도할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얼굴은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 풀어놓기

#### ① 이야기 나누기-위령 성월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교사는 예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위령 성월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유아들이 생명과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위령 성월은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다. 돌아가신 분들이 하느님을 빨리 뵈고 하느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 있는 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가 크면 클수록 하느님을 만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이 빨리 하느님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게 기도드리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 ② 기도 카드 만들기

103쪽 만들기 자료를 잘라서 기도 카드를 만든 후, 돌아가신 분들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지도한다.



### 모으기

교사는 위령 성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알려 주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마무리한다.



### 마침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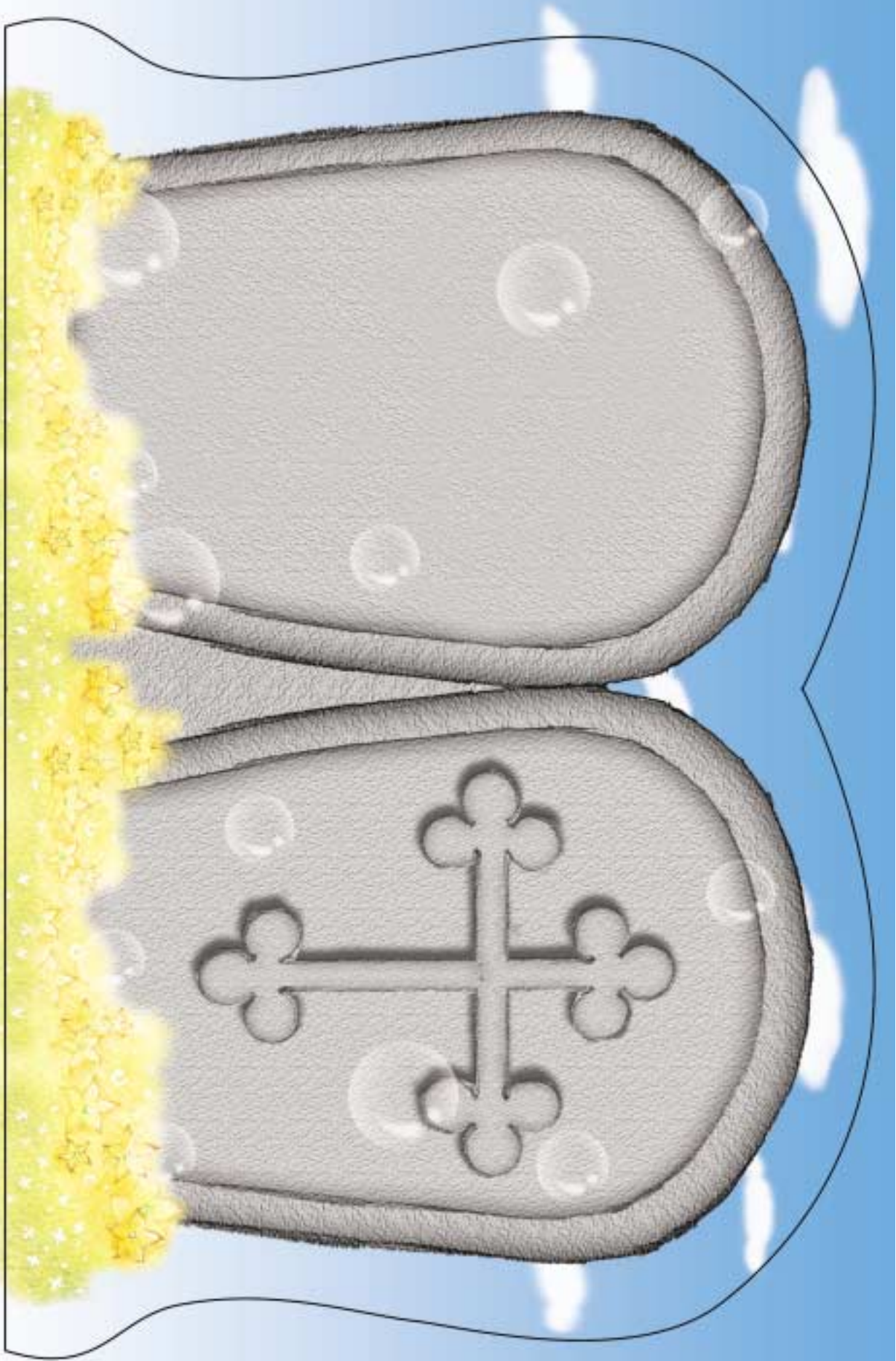
선대로 잘라서 사용하세요.







선대로 잘라서 사용하세요.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세요.

---

---

---

---

---

---

---

---

---

---